

新聞放送學科의 發展方向

孫 龍
(中央大 新聞放送學科 副教授)

I. 序 論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신문방송학」이란 「新聞紙學」에서 출발하여 주로 인쇄매체만을 대상으로 연구해 오다가 그 연구 영역을 放送, 영화, 전자매체에까지 확대하여 매스커뮤니케이션學으로 불리워 왔고, 현대(1950년대 이후)에 와서는 對人 커뮤니케이션, 광고, 선전, P.R., 組織 커뮤니케이션 등 모든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다루는 커뮤니케이션學으로 발전하였다.

한 학문 분야의 體系化는 獨立科學으로서 필수 불가결한 전제조건이고, 오늘날의 학문은 시대적 변천에 따른 현실사회적인 요구에 의해서 생성되고 발전되어 가며 이에 따라서 일반적인 경향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기 마련이다.

커뮤니케이션 현상은 心理學, 社會學, 政治學, 經濟學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체계에서 취급됨으로써 綜合學問性(Interdiscipline)에서 볼 때 커뮤니케이션學이 存在한다기보다는 모든 학문 영역이 상호보완적 입장에서 연구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종합학문으로서가 아니라 特殊科學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 현상에 대한 개념 정립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대학교육의 목적은 참다운 인간교육에 있다.

대학의 신문학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급변하는 科學技術, 文化의 세계에서 현명하게 생활하며 文化(매스커뮤니케이션 현상을 포함한다)를 창조하여 운영함으로써 그 세계가 갖는 새로운 방향을 광범위하게 배양하는 데 있다.

현대 사회의 언론은 大衆의 지식과 의지 그리고 行動類型을 규정지워 주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중의 現實對處의 성숙을 위한 언론의 역할과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不確實性이나 오류는 대중 전체에 대한 잠재적 인권 침해라 아니 할 수 없다. 언론의 현실 보도에 대한 정확성과 공정성은 정치적, 사회적인 외적 제약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언론인 스스로의 직업적인 의식과 전문화를 위한 교육의 결여를 들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대학의 신문학 교육은 단순한 道具의 기능인으로서가 아니라 意識과 主觀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전문직업인의 사명감으로 무장된 언론인 양성에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本稿에서는 신문방송학과 교과과정의 문제점, 앞으로의 발전 방향, 신문방송학과 졸업생의 진로, 외국의 신문학 교육과의 비교 등에 대해서論하겠다.

II. 韓國의 新聞學 教育

1954년 홍익대학이 신문학과를 창설한 이후부터 한국에서도 대부분의 綜合大學들은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유능한 전문언론인을 교육시키고 양성하기 위하여 신문방송학과를 설립하기 시작하여 1983년 현재 15개 대학에서 학부 과정에 신문방송학과를 두고 있으며, 9개의 석사 과정 및 8개 박사과정이 설치되어 있다.

신문방송학과 설립이 활발하였던 '60년대 중반에는 유능한 專門言論人을 양성할 것에 초점을 맞추어 주로 職業教育을 위한 관점에서 교과목이 운영되어 왔으나, 교육 받은 신문방송학도들의 언론계 진출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문방송학은 직업교육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理論研究로 점차 교육내용이 바뀌어졌고 본래의 학과 설립 취지와는 거리가 점차 멀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현재는 교과목 설정과 운영에 있어서 각 대학마다 크게 다르고 정신 교육이나 실기 교육보다는 계량적 방법론의 과도한 적용으로 일종의 行態科學으로 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15개 신문방송학과 의 교과과정을 분석해 보면 類似科目을 통합하더라도 전문분야 과목으로 96개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각 대학의 학칙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학은 졸업학점으로 140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그 중에서 교양과목 15과목 내외, 전공필수 10과목 내외, 전공선택 12과목 내외, 일반선택 10과목 내외를 취득하면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최소 취득학과목 수는 47~50 개가 되며 교양과목을 제외한 32 과목은 전공필수나 선택 또는 부전공이나 일반선택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신문방송학과 졸업생은 언론 관계 전문과목으로 22 과목 정도만 취득하면 신문방송학과 졸업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각 대학에서 개설하고 있는 교과목은 전공필수 5~11 과목, 전공선택 14~29 과목으로 개설 과목 수가 19 과목에서 39 과목이 되는 정도로 차이가 많다. 전국 15개 신문방송학과 설치대학의 교과과정표 중 14개 대학¹⁾ 것을 모

아 비교해 본 결과 14개 대학 모두가 개설하고 있는 과목이 방송원론, 13개 대학이 개설하고 있는 과목이 신문원론, 한국언론사, 12개 대학이 PR 및 광고론, 11개 대학이 메스컴 윤리법제, 광고론, 신문편집론, 10개 대학이 국제커뮤니케이션, 9개 대학이 메스컴 조사방법론, 국제커뮤니케이션, 원서강독, 보도사진론, 8개 대학이 메스컴 경영, 여론과 선전, 출판잡지, 시사영어, 과반수인 7개 대학이 메스컴커뮤니케이션, 방송제작 실습, 메스 미디어 비교론, 메스컴커뮤니케이션 연구방법론, 메스컴과 사회, 커뮤니케이션 발달사, 6개 대학이 연극영화, 커뮤니케이션 효과, 메스컴커뮤니케이션 이론, 방송 편집, 5개 대학이 커뮤니케이션 심리, 메스컴 특강, 메스컴커뮤니케이션 이론, 신문학 연습, 취재보도, 정치 커뮤니케이션, 언론사상사, 4개 대학이 보도기사, 신문제작 실습, 메스컴 사회학, 광고제작, 발전 커뮤니케이션, 방송연습, 라디오 실습, TV 실습, 메스컴 통계, 대중문화, 사회학개론(주로 교양과목으로), 메스컴 특강Ⅱ, 세계 메스컴史들이며 나머지 50개 과목 중 12개 과목은 3개 대학, 12개 과목은 2개 대학, 26개 과목은 1개 대학들이 개설하고 있다.²⁾

교과목의 종류는 다양한 면을 고루 갖추고 있다 할 수 있으나 각 대학마다의 교과과정에 따른 特色이 뚜렷하지 않다. 구태여 특색을 따진다면, 신문, 방송, 홍보, 이론, 정치, 영상, 연구조사방법 등과 관련된 교과목이 다른 대학에 비하여 몇 개 더 있다던가 또는 개설과목 수가 다른 대학에 비해 거의 두 배가 된다는 것에서 찾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론분야가 실무분야보다 많고, 실무분야의 實習施設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는데도 개설을 하고 있는 대학이 많다.

신문방송학 교과목은 우리 나라 앞날의 言論人材를 배출하는 데 무엇을 교육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라는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미래의 언론 인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또 어떻게 전문지식과 기술을 전수하느냐는 것도 문제가 된다. 그런데 한국의 신문방송학 교과과정은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라는 언론교육의 철학적 탐구에서 형성된

것이러기보다 특정대학의 담당교수가 누구인가라는 데 따라서 엮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문제되는 것은 96개 과목이나 개설되고 있으나 실제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언론계에 진출한 신입 언론인들은 현 업계에서 再教育시켜야 비로소 일을 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다.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이 전문분야의 이론에는 밝으나 실무에는 어둡다는 점은 모두가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특히 실험대학 체계가 아직 존속하고 있고 학년별 교과과정 운영으로 되돌아오지 않은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신문방송학과 교과과정 운영은 이 때문에 더욱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현재의 교과목 설정과 그 운영은 커뮤니케이션 학자를 양성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전문언론인을 양성하는 데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

1. 學科設置 現況

1984년 현재 서울의 10개 대학과 지방의 5개 대학에서 신문방송학과 학부과정을 두고 있으며 서울에만 9개 대학에 10개 석사과정과 8개 대학에 박사과정이 설치되어 신문학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³⁾

학부과정으로서는 1958년에 창설된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가 현존하는 신문방송학과 중에 가장 오래되었으며, 석사과정은 1964년에 설립된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이, 그리고 서울대학교가 1974년 최초로 박사과정을 개설하였다.

한편 1981년 연세대학교 李相回 교수가 「政治放送의 균형과 접근의 원리」로 한국 대학에서는 최초로 신문학 분야의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1982년에는 彭元順, 金鎮洪, 朴正圭 교수 등 3명의 현직 신문학전공 교수가 서울대학교에서 신문학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⁴⁾ 또한 梨大의 尹燮重 교수도 고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신문방송학과가 있는 지방의 5개 대학 중에는 淸州大만이 유일하게 첫 학부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청주대, 우석대, 원광대, 전남대, 계명대 모두 상위 과정(대학원)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또한 학부, 석사, 박사과정 모두를 설치하고 있

는 대학은 중앙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한양대, 성균관대, 경희대 등 8개 대학이다.

학과의 공식 명칭은 문교부의 방침에 따라 모두 신문방송학과로 부르고 있으나 서울대는 新聞學科로, 한국의국어대는 홍보학과로 되어 있다.

학위수여는 크게 문학과 정치학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8개 대학에서 文學士 학위를 그리고 중앙대를 비롯한 7개 대학에서 정치학사 학위를 수여하고 있으나 청주대학만이 유일하게 행정학 학위를 수여한다.

한편 신문학과가 소속해 있는 단과대학은 사회과학대학에 6개교(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원광대, 계명대), 경영대학이 3개교(중앙대, 고려대, 경희대), 법정대학이 2개교(한국의국어대, 청주대), 그리고 서강대는 문과대학에, 이화여대는 인문대학에, 전남대는 인문사회대학에 각각 속해 있으며, 우석대학은 단과대학인 관계로 사회계열에 속해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소속 단과대학과 학위수여의 상관 관계성은 동일한 단과대학일지라도 각각 다른 학위를 수여하는 등 一貫性을 찾아볼 수 없으며 대학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학부의 신입생 모집 방법에 있어서는 경희대, 계명대, 우석대 등 5개 대학이 계열별 모집을 하고 중앙대 등 10개 대학이 학과별로 모집하고 있다.

2. 學生과 教授 現況

전국적으로 1983년 1학기에 재학중인 신문방송학과 학생 분포는 학부 2,421명, 석사과정 340명(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199명 포함), 박사과정 37명 등 총 2,798명으로 신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教授陣에 관하여 살펴보면 전국적으로는 66명의 신문방송학과 전임교원(專任講師 이상)이 있으며 대학별로는 한양대(반월분교 포함) 7명, 고려대, 서울대, 서강대 등 3개 대학이 6명이다. 교수 1인당 학부 학생 담당인원이 30명 이하인 대학은 한양대, 서울대, 서강대 등이며, 평균적으로는 37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대학은 교수가 5명 미만으로 교수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서울의 경희대는 학부, 석사, 박사과정까

지 설치되어 있으나 3명의 교수밖에 없어 절대적으로 교수가 부족한 실정이다.

교수 현황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문방송학과 교수 중 40명이 박사학위를, 25명이 석사학위를 갖고 있다. 최종 출신대학의 국가별 분포는 국내가 33명, 미국이 24명, 독일이 5명, 프랑스, 일본 등 기타 국가가 4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3. 卒業生 現況

'83년도 韓國言論研究院⁹⁾이 경희대, 서강대,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청주대, 한양대의 신문방송학과와 서울대 신문학과, 외국어대 홍보학과, 중앙대 광보학과 등 11개 대학의 12개 메스컴 관련학과 졸업생('83년 2월)을 대상으로 83년 7월 현재까지 그들의 거취를 진학, 취업, 군입대, 기타로 나누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졸업생 266명 중 65.4%인 174명이 취업을 하고, 진학을 12%인 32명이, 군입대를 12.4%인 33명이 했고, 기타가 10.2%인 27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신문사, 방송국을 비롯한 관련분야에의 취업은 65.5%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서도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신문사나 방송국에는 25.4%인 29명만이 들어갔다.

이것은 오늘날 거의 모든 직업 분야에서 그러하듯이 교육기관, 공익단체, 국가기관들이 일정한 수준의 직업 혹은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 기관으로부터 公認된 자격을 소지한 사람만이 해당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社會制度가 바뀌어 가고 있는데 반해 우리 나라의 언론 분야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 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에 있어서 언론계의 인력수급 방식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特採와 一般 公開採用이 있다. 여기서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혜는 거의 없고 선발하는 데 필요한 평가 기준은 영어실력, 상식, 문장력과 면접을 통한 표현력과 외모 등에 국한된다.

이러한 선발 방식은 언론계 나름대로 지켜 내려오고 있는 오랜 관습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오늘날과 같은 우리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 속에서는 소극적이고 낙후된 방식이다. 오늘날 대

부분의 직종에서 그리고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해당 직종과 분야에 관한 기본적 자질과 확고한 職業倫理觀과 使命感을 고루 겸비한 전문직업인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인력수급도 이러한 맥락에서 실시되고 있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언론기관의 인력 선발 방식은 언론의 전문성과 언론매체의 사회적·국가적 기능면에서 볼 때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점을 많이 안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언론매체 소유주의 개인적 편리와 기준에 따라 언론인을 선발케 하고 나아가서 그 교육 본질에 까지 영향을 끼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Ⅲ. 新聞放送學 發展을 위한 提言

신문방송학은 학문 성격상 사회과학 영역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신문방송학은 17세기 중엽부터 서구에서 學問化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변하지 않는 원리나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方法論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고 각 시대마다 당시 시대적 상황에 처해 있는 인간들 사이에서 행하여지는 對話(언론)와 관계되는 모든 요인들을 사회의 긍정적 발전을 위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평가하고 정리하는 데에 연구의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시대 변화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학문들 가운데 신문방송학은 가장 대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원인은 연구자의 시대적 변설에 있는 것이 아니고 研究對象의 特異性에 있다. 즉 연구대상과 관계되는 주요 요인들인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욕구, 전달 수단, 통제 수단 등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시대적 제반 여건에 따라 변하게 마련이어서 역시 신문방송학은 시대 변화와 함께 변할 수밖에 없는 應用學問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때 신문방송학의 교과목 개편이나 언론인 양성방법 개선과 더불어 신문방송학이 시대적 요청과 감각에 맞도록 기타 내외적 조건과 여건을 개선하는 일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신문방송학 그리고 신문방송학계가 발전하기 위한 필수적 여건이 무엇이며, 어떠한 것들이 저해 요인으로 존재하며,

이들을 어떻게 제거하고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관하여 알아보면서 그 방안을 제시하고 건의하여 보겠다.

1) 學科 명칭과 學位 명칭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현재 학교에 따라서는 신문학과, 홍보학과, 신문방송학과 등으로 불리우고 있다. 사실 이들 학과들은 학과 이름만 다를 뿐 실제에 있어서는 거의 차이가 없다.

그리고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서 부르고 있는 「신문방송학」 혹은 「신문방송학과」라는 칭호는 전근대적 색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일반 사회인이나 학제인사들도 명칭을 바꾸어 부르기를 오래 전부터 희망하고 있다. 학문성격이나 현재의 시대적 추세에 맞추어 볼 때 「언론」이라는 개념이 거의 일반화되어 있으므로 「신문방송」이라는 개념대신 言論이라는 개념으로 통일하여 「언론학」 「언론학과」로 통일하여 부르기를 바란다.

2) 따라서 자연히 학위명칭도 統一되어야 한다. 현재 학사, 석사, 박사학위 명칭이 학교마다 서로 다르게 불리워지고 또 수여되고 있다. 즉 문학, 정치학, 사회학 등의 학위 명칭을 「언론학 학사」, 「언론학 석사」, 「언론학 박사」 등으로 바꾸어야 한다.

3) 현재 신문방송학과는 대부분 서울에 있는 대학에 설치되어 있고 지방에는 겨우 이리, 전주, 광주, 대구, 청주 등의 몇 개 도시에만 학과가 있을 뿐이다. 앞으로 지방 언론을 육성하고 지방문화 개발과 지역사회의 홍보 활동을 강화하려면 지방문화권 단위로 언론인 양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소한 각 道의 도청 소재지만이라도 최소한 1개의 신문방송학과가 설치·운영되어야 하겠다.

4) 앞으로 학문 영역의 細分化가 이루어져서 신문전공, 방송전공, 출판잡지전공, 광고홍보전공, 연구영화전공, 스포츠전공, 커뮤니케이션전공 등으로 분리되면 당연히 단과대학이나 特殊大學으로 현재의 신문방송학과가 승격되어야 한다. 이 계획이 실현될 경우 그리고 실습을 위주로 한 직업교육이 실시될 경우 많은 敎授要員이 필요하고 특히 실습교육을 담당할 교수요원 영입이 시급한 문제로 등장할 것이다. 그러므로 학계는 實務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유능한 교수

요원을 과감히 채용하는 야량을 베풀어야 하고 이를 가능케 하는 제도적 보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이론 교수요원과 실습 교수요원이 일정한 비율로 교수진이 짜여지도록 하여 현재와 같이 전임 교수요원은 거의 이론교육만 맡고 실습 교육은 주로 외부강사로 메꾸어져서 실습교육의 不實化를 초래하고 있는 현상은 시정되어야 한다. 재정상의 어려움이나 교과목의 특수성 때문에 각 학교마다 충분한 수의 실습 전임교수(이론 전임교수도 마찬가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것이 한국 대학의 실정이므로 학교간의 원활한 교수요원 교환과 학점 교환제도의 마련은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5) 대학의 실습시설이나 기자재 혹은 실습 교수요원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실습교육이 어려워지면 기존 언론기관의 시설물이나 현장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독일의 언론인 교육방식과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각 언론기관에 일정 수의 학생을 주기적으로 파견하여 실습교육을 委託하여 학점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理論과 實際를 연관시키고 현장 감각을 일깨워 주어야 하는 것이 신문방송학의 교육목적이라면 언론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하여야 한다.

6) 신문방송학을 전공 혹은 부전공으로 택하여 일정한 교육과정을 마치고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언론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군의 정훈 요원, 정부·기업체·공공기관의 홍보 요원, 사회교육 요원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채용 범위와 기준이 制度的으로 정해져야 한다. *

<註>

- 1) 중앙대, 이화여대, 한양대,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연세대, 서울대, 청주대, 외국어대, 계명대, 원광대, 전남대(우석대 제외).
- 2) 한국신문학회, 전문언론인 양성을 위한 신문방송학과 교육과정 개선방안, 1983. 9, pp.13~14.
- 3) 중앙대학교는 석사과정이 대학원 신문학과(주간, 2년)와 전문대학원인 신문방송 대학원(2년 반)으로 二元化되어 있다.
- 4) 鄭晉錫, 한국언론관계문헌색인,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1982, p.435.
- 5) 韓國言論研究院, 신문과 방송, 1983. 9월호, pp.63-66.